

국정뉴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된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춘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유족 및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유해가 발굴된 6·25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입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유럽 3국 국민 방문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관련 경험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민 방문했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핀란드를 방문,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등 혁신성장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사진> 문 대통령은 13~15일 스웨덴을 방문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증진과 혁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北, 한반도 평화 위해 ‘통 큰 결단’ 보여줘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우리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설득함은 물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감내하면서 남북군사합의를 관철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각종 한미군사연습 및 훈련의 형식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쟁점거리 여기는 부분을 조정했다.

최근 북한의 화력 시위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운용하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이 미사일은 사용 연료가 고체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꿈으로써 기동하기도 수월하고 노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습적인 발사나 공격에 용이하게 됐다. 정확성도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기술

경탄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연장탄에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단 1발로도 명중이 가능하고 고퍽탄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정밀유도 사격이 가능하다. 가격은 1발당 1~2억 원 쯤으로 추정된다.

셋째로 이번에 시험된 장비가 신형 자주포이다. 이 포는 포탑이 완전히 장갑화

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매우 큰 변수가 생겼으니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 간의 오랜 적대관계로 인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고대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한반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길은 오로지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대포와 미사일을 답습하는 종전의 행태 대신에 경제발전과 평화협력을 위해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그에 걸맞는 화답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지도자’답게 이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가 중요해
북, 전력 감축 등 국제사회와 화해 모색 필요

로는 격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중론이다.

둘째, 북한의 300밀리 다연장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 포탄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운용되는 탄이기도 한데 북한제는 사거리가 200km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2~3배 연장했다. 통상 비유도 다연장탄은 10발정도 쏘면 한발이 명중할 정도이기 때문에 화학탄이나 신

되어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기동성도 향상된 듯하다.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화력타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조 원 정도의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과 경쟁은 한시름 놓아